

섬김으로서의 예배

■ 본문

마 4:10

■ 시작 찬송가

23, 28, 88장
(통 23, 28, 88장)

■ 헌금 찬송가

301, 591, 589장
(통 460, 310, 308장)

▶ 섬김의 태도

1. 겸허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수22:5)
-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대상28:9)
- 한마음으로 (슥3:9)

2.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 부지런하여 게으름이 없이 (롬12:11)
- 매일 서서 (히10:11)
- 밤낮으로 (계7:15)
- 어려울 때에도 계속해서 (단6:16)

3. 간절히 섬겨야 합니다.

- 시험을 참고 (행20:19)
-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눅2:37)
- 일심으로 (슥3:9)

4.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 소유물로 섬깁니다 (눅8:3)
- 각자 맡은 직무대로 섬겨야 한다 (대상24:3)
- 목숨까지 바쳐 섬겨야 한다 (빌2:30)
- 신령한 노래로 섬겨야 한다 (대상 25:1)
-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롬7:6)

예수님께서서는 예배를 ‘섬김’ (라트류오, λατρεύω)과 동일선상에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구약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즉 그의 뜻을 섬기고, 그의 일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 섬김으로서의 예배

1)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였듯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예배를 통해서도 돈, 권력을 송배하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합니다. 주일예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보다 나의 일을 세상의 일을 더 중시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섬김은 사단의 것입니다. 교인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섬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섬겼으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섬겼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반대로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3)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성도라면 무릇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어떻게 해서든 섬김을 받으려 하면서도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를 빼놓지 않는 열심은 그릇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섬김도 포함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섬기는 자의 자세

1)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섬김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처럼, 머슴처럼 낮아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빌 2:6-7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섬기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종이 되고 머슴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종이냐 머슴에게는 오직 섬김만 있을 뿐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섬기기만 할 뿐입니다.

벧전 5: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3)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온전한 섬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섬김의 절정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의 상급

1.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립니다.

-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시145:15-15)
-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시4):1-2)
- 삶의 소망을 가진다 (시130:1-2)

2. 영혼이 잘되고 축복을 누립니다.

-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다 (눅23:49)
-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요3:16)

▶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1. 이방 신들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야 함 (삼상 7:3)
2.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함(수 22:5)
3.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함(대상28:9)
4. 주아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겨야 함(눅2:37)
5.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함 (롬 12:11)
6.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섬겨야 함(딤후1:3)
7. 밤낮으로 항상 섬겨야 함 (계7:15)

결론

1. 예배는 섬김입니다.
2. 섬기는 예배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섬깁니다.
3. 섬기는 자는 낮아지며, 겸손하며, 희생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대통령과 3부요인 및 여야의원들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5.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를 위하여
6.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7. 에너지(물, 전기 등) 절약을 통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8. 아동성소병원과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9.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